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22

▶ 23회 예고
변방 웃자인에서 반란이 일어난다. 빈두사라는 신경을 곤두세운다. 방치하면 주변 소국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빈두사라는 대신과 다르마 왕비를 통해서 아쇼까를 설득한다. 결국 아쇼까는 웃자인으로 떠날 것을 결심한다.



# 요리별실 궁녀들을 처형하다

내성 성벽 순시를 마친 친위대장은 죄인을 다스리는 감옥의 우두머리 전옥(典獄)을 찾아가 만났다. 마침 전옥은 왕자독살 미수사건으로 잡혀온 궁녀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나오는 길이었다. 전옥은 큰 사건인데도 범인을 잡아내지 못한 것에 혀를 차고 있었다. 왕명이 떨어지면 처음부터 조사를 다시 해봐야겠다는 태도였다. 친위대장이 말했다.

"대왕께서는 감옥에 있는 궁녀 전원을 처형하라는 명을 내리었소."

"누가 사주했는지 조사해야 하지 않겠소?"

"연루자가 자살해 버렸으니 어려운 일이오."

"모두 처형해버리면 영원히 미궁에 빠져버리지 않겠소?"

"대왕께서 모두 처형하라는 이유가 있소. 왕자님의 음식에 독을 탄 궁녀도 궁녀지만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죄를 궁녀들 모두가 지었기 때문이오."

"궁녀들을 처형 직전까지 조사하겠소. 그래야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소."

"그렇다면 처형 시기를 늦추어 달라고 대왕님께 건의할 테니 기다려 보시오."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소."

"대왕님의 명이니 조사하다가 궁녀들이 죽어도 상관하지 않겠소."

친위대장은 전옥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여기어 자신의 직권으로 궁녀들의 처형시기를 늦추었다. 궁으로 돌아가 빈두사라왕의 허락도 받아냈다.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과 관원이 따로 있으나 전옥은 나라의 중요사건에 대해서 왕명을 받아 죄인을 수사한 적이 있었으므로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친위대장을 통해 빈두사라왕으로부터 궁녀들의 수사권을 위임받은 전옥은 잔인하고 인정사정없는 옥졸 10명을 선발해 수사요원으로 명했다. 첫 번째로 불려온 궁녀는 라따나 왕자 음식에 독을 탄 궁녀와 한 방에서 잠을 자던 수드라였다. 고문실에 불려온 어린 궁녀는 수사하는 옥졸들 앞에 서자마자 부들부들 떨었다. 늙은 옥졸이 어린 궁녀를 타이르듯 말했다.

"사실대로 말하면 살려주겠다. 누가 왕자님 음식에 독을 타라고 지시했느냐?"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죽은 궁녀와 한 방에서 잠을 자는 사이인데도 전혀 모른단 말이냐?"

"인드라 신께 맹세합니다. 언니궁녀가 왕자님을 좋아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음식에 독을 타겠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그런 낌새를 조금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감히 수드라 주제에 왕자님을 사모했다고? 자살한 궁녀가 너에게 무어라고 말하더냐?"

"라따나 왕자님의 모습만 봐도 가슴이 콩콩 뛴다고 저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젊은 옥졸이 얼굴을 험악하게 일그러뜨리며 소리쳤다.

"왕자님을 사모했던 궁녀가 왕자님 음식에 독을 탔다고? 그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언니궁녀가 음식에 독을 탔다가 그 음식을 먼저 먹어버린 것 같습니다."

늙은 옥졸이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단 말이지. 좋아. 그럼 궁녀에게 독을 타라고 사주한 범인이 있지 않겠느냐? 그 범인만 실토하면 살려주겠다."

"옥졸님, 저는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늙은 옥졸이 젊은 옥졸에게 눈짓을 하자 궁녀를 또 다른 고문실로 데리고 갔다. 그 고문실에는 수십 마리의 뱀이 스멀스멀 기어 다니고 있었다. 어린 궁녀가 뱀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다.

"뱀을 더 넣어라!"

지시를 받은 젊은 옥졸이 밖으로 나갔다가 자루를 들고 왔다. 그런 뒤 고문실 문을 열고 자루를 던졌다. 자루에서 뱀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겁에 질린 어린 궁녀가 울부짖기 시작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젊은 옥졸이 문 옆의 들창문을 열고 말했다.

"살고 싶으면 자백하거라."

어린 궁녀는 대답하지 못하고 뱀들이 다가오자 비명만 질러댔다. 늙은 옥졸이 말했다.

"독이 없는 뱀이니 죽지는 않을 것이지만 곧 혼절한 것이다. 이번에는 우두머리궁녀를 데리고 오너라."

우두머리궁녀는 옥졸의 부축을 받고 고문실로 들어왔다. 어느 새 고문실에는 새로운 고문기구가 놓여 있었다. 시커먼 솥 밑에서는 유황불이 활활 탔다. 유황불 불빛에 옥졸들의 얼굴이 번들거렸다. 솥 안에서는 물이 금세 끓기 시작했다. 우두머리궁녀는 모진 고문을 당했는지 얼굴은 상처투성이였고 옷자락에는 여기저기 피가 묻어 있었다. 늙은 옥졸이 엄하게 말했다.

"네가 음식을 요리하는 우두머리궁녀냐?"

"그렇습니다."

"어찌 감독하였길래 라따나 왕자님 음식에 독이 들어간 것이냐?"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제가 죽을 것이니 다른 궁녀들은 살려주십시오."

"누가 사주했는지 말하라. 그러면 네 뜻을 받아들여 궁녀들을 살려달라고 건의하겠다."

"맹세컨대 나는 모릅니다."

"그렇다면 자살한 궁녀와 자주 만났던 사람은 누구냐?"

"요리하는 별실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셨으니 한 분만 지목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두머리궁녀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담담하게 말했다.

"네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구나."

늙은 옥졸이 젊은 옥졸에게 턱짓을 했다. 그러자 젊은 옥졸이 우두머리궁녀의 오른팔을 낚아채더니 펄펄 끓는 솥물에 집어넣었다. 우두머리궁녀가 발작하듯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다.



"이래도 실토하지 않겠느냐!"

"나는 누구에게도 누명을 씌우고 싶지 않습니다."

"협조할 생각이 아예 없구나!"

늙은 옥졸이 자신의 왼팔을 들자 젊은 옥졸이 이번에는 우두머리궁녀의 왼팔을 잡아당기더니 솥물에 담갔다. 우두머리궁녀의 오른팔은 뼈가 녹아버린 듯 덜렁덜렁 움직였다. 늙은 옥졸이 악마처럼 소리쳤다.

"요리별실에 다녀간 사람들을 모두 대거라. 대지 않으면 너는 이 자리에서 두 다리마저 잃을 것이니라."

"차라리 죽여주시오."

늙은 옥졸은 자신이 협박한 대로 우두머리궁녀의 오른발을 솥물에 넣도록 지시했다. 그래도 입을 다물고 있자 그녀의 왼발까지 담그도록 했다. 이번에는 젊은 옥졸이 소리쳤다.

"요리별실을 출입한 사람을 대거라."

"저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말하지 않겠소."

"참으로 독한 궁녀다."

늙은 옥졸이 눈을 희번덕거리며 도리질했다.

"끌고 나가거라."

사지가 벌겋게 익어버린 우두머리궁녀는 혼절한 상태로 들것에 실려 나갔다. 뱀들이 기어 다니는 고문실에 든 어린 궁녀는 실성해버렸다. 갑자기 히죽히죽 웃으며 젊은 옥졸 손에 끌려 나갔다. 젊은 옥졸이 말했다.

"궁녀를 또 데리고 올까요?"

"나이 많은 늙은 궁녀를 조사해보자."

어쩌면 나이 많은 궁녀는 실토할지도 몰랐다. 궁에서 오래 살아남았으므로 요령이 많을 것 같았다. 늙은 옥졸의 생각은 맞아떨어졌다. 고문실에 들어온 늙은 궁녀는 살려달라고 애원부터 했다.

"살려만 준다면 무슨 말이든 다 하겠소. 무엇을 알고 싶소?"

"궁녀가 죽은 날 요리별실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보시오."

큰 화로에 국자 모양의 쇠붙이가 벌겋게 달궈지고 있었다. 쇠붙이는 죄인의 살을 지지는 고문 기구였다. 고문 기구를 보자마자 늙은 궁녀는 교활한 표정으로 말했다.

"왕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왕비님이라고? 잘 생각해 보시오."

"아, 생각이 납니다. 저녁식사 전 요리별실에서 본 사람이 빠빠 왕비님 같기도 했습니다."

"빠빠 왕비님?"

"뒷모습이라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빠빠 왕비님 같았습니다."

"조사해 보면 알겠지."

늙은 옥졸은 그 궁녀를 옥으로 돌려보낸 뒤 전옥을 찾아갔다. 그런데 빠빠 왕비는 그녀의 입에서 튀어 나온 말일 뿐이었다. 빠빠 왕비가 자신에게 어린 궁녀들 앞에서 욕을 하고 발길질까지 하는 등 함부로 대했던 것이다. 때가 되면 언제든 복수하려고 했던 참에 빠빠 왕비가 문득 떠올랐을 뿐이었다. 전옥은 늙은 옥졸을 보고 말했다.

"실마리를 찾아냈소?"

"늙은 궁녀가 빠빠 왕비를 지목했습니다."

"그래요? 나는 빠빠 왕비가 왕자님 음식에 독을 타라고 사주했을까, 하는 의심이 드오."

"어째서 그렇습니까?"

"빠빠 왕비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석녀요. 대왕님 총애를 받는 왕자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으면 했지 그럴 이유가 없다는 말이오."

"궁녀가 한 말이니 빠빠 왕비님을 조사는 해봐야겠습니다."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오."

친위대장의 은근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옥은 빠빠 왕비를 감옥으로 연행해서 조사했다. 빠빠 왕비는 흥분해서 날뛰었다. 감옥으로 연행해 가는 동안 옥졸들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 연행하는 옥졸의 손을 물어뜯기도 했다. 전옥집무실에 들어서 전옥을 보자마자 큰소리로 항의했다.

"왕비에게 모욕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오!"

"궁녀가 자살한 날 오후식사 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누가 나를 모함했소?"

"모함으로 알려지면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남을 모함한 죄까지 더해져 극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궁녀들 중에 누군가의 모함이오."

빠빠 왕비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분을 가라앉히고 있었다. 그런 뒤 전옥을 보면서 표독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는 너희들이 나에게 당할 차례야, 하는 그런 표정이었다. 빠빠 왕비가 저주하듯 말했다.

"그날 나는 내 별궁에서 대왕님과 함께 있었소. 저녁식사를 함께 했소. 자, 이제 됐소?"

"사실입니까?"

"대왕님께 직접 물어 보시오. 그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소?"

전옥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다. 그런 전옥을 보면서 빠빠 왕비는 전옥집무실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옥졸들 모두가 아무도 빠빠 왕비를 제지하지 못했다. 그때 옥졸 하나가 다급하게 다가와 전옥에게 보고했다.

"어젯밤에 들것에 실려 나갔던 궁녀가 죽었습니다. 화기가 온몸에 퍼져 퉁퉁 부은 채 죽었습니다."

"친위대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니 그대로 두거라."

"실성한 궁녀는 어찌 됐느냐?"

"아예 미쳐버렸습니다. 벽에 머리를 찧고 뒹굴어 온몸을 포승줄로 묶어 놓았습니다."

전옥은 궁녀들을 더 조사하지 못하게 지시했는데, 그날 오후 빠빠 왕비를 이유 없이 연행했다는 불경죄로 전옥직을 박탈당했다. 결국 그는 빠딸리뿌뜨라를 떠나라는 벌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갔고, 요리별실에서 음식을 만들던 궁녀들은 원래대로 모두 사형을 당했다. 산 채로 묶여져 장작더미 불길 속에 던져졌다. 〈계속〉



혜암
미술 공예품
개·점·안·내

5월 10일, 불상·불화·만다라·도자기등을 전시 판매하고자 **경북 포항시 기북면 불원사 경내에 혜암 미술 공예품 매장을 오픈** 하였습니다. 불상은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소장성이 많은 희귀불상, 티벳 불상, 현대불상 불화는 티벳, 네팔에서 직접 구입한 여러 가지 만다라를 전시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혜암 미술 공예품을 찾아 주시는 스님들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혹시 찾는 불화나 불상이 있으시면 찾아 드리겠습니다.

혜암 미술 공예품 대표 **신 재 훈** 배상

네비게이션에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대곡리 855번지 불원사"** 로 검색 하십시오.

**문의 010-5652-0174, 010-4504-0174**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사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석정수 스님
**010-2766-7677**

뻐꾹새 우는 북한산성 약사선원(명상센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